

중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양순옥* · 김성실* · 정금희* · 김신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인간의 발달은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연속적 과정이므로 성은 발달의 어느 단계에 있어도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는 생식기관이 성숙 단계에 이르고 정신적으로는 인지발달로 인해 자신의 실체를 살펴보고,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와 성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또한 성인으로서의 역할이나 개성을 키우려는 계획과 생애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생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김영희, 이명화, 1997).

오늘날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그와 관련된 생활양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즉 서구의 성 개방 풍조의 유입과 성의 도구화, 상품화로 인한 저속한 성문화의 범람, 특히 대중매체에서 노골화된 성적 표현, 향락산업의 번성 등은 성 윤리관의 아노미 현상 등을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증가와 성병 문제 등의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예방은 물론 치료적 차원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양순옥, 정금희, 1998; 송정부, 1992; 김수지,

노춘희, 1990).

성교육은 일차적으로는 가정교육 기능의 범주속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가정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잘 지도하고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역할이 동일시 되어 점차 성인으로서 준비를 시키는 곳이기 때문이다(김한경, 1983; Cassel, 1981; Heisler, 1980).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속에 성장하는 자녀를 가정에서만 교육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으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성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성교육이란 단순히 인간의 생리적 구조와 기능이나 해부학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으로서, 인간을 이해하며 인간의 가치추구와 직결되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교는 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발전과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기능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도와주어야 한다(김한경, 1983; Rubinson, 1981). 따라서 학교 성교육은 성장발달에 맞는 성 지식, 태도 및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 성적 성숙과정의 적응을 준비시켜 주고 성적 욕구를 승화시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대등한 인격자로 남녀관계를 정립하고 바른 성윤리관을 통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양순옥 2000, 이요식 등, 1992; 이순열, 1991; 안창선과 김현옥, 1991).

그러나 청소년의 성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는 부모나 교사로부터 교육받기 보다는 친구나 또는 선배 및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하지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많은 정보를 통해 성문제를 해결하므로 왜곡된 성 인식을 갖기 쉽다.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태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양순옥, 정금희, 1998; 임미림, 1996). 특히 중학생은 13-16세 사이의 사춘기로서 신체, 심리적으로 아동기와 구별되는 과도기 또는 생의 준비기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어느 시기보다도 성숙과 학습의 가능성이 풍부한 시기이므로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블레이, 1982). 그러나 정상적인 성의 발달과 성숙을 자연스럽게 건전하게 받아들이고, 왜곡된 성 태도나 일탈 성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실제 일탈 성행위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 사춘기 전반기의 빠른 성숙과 학습의 가능성이 풍부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전한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을 길러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중학교시기에 올바른 성 지식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성 태도를 길러나감으로써 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예방, 극복하며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을 두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학생이 올바르게 건전한 성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연구하여 앞으로 중학생의 성교육을 위한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 건강을 증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를 알아본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3.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II. 문헌 고찰

1. 청소년과 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생의 전과정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빠른 신체 성숙과 함께 정신적으로는 처해 있는 세계와 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미래 성인으로서의 역할이나 개성을 신장시키려는 계획과 생의 설계를 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김영희와 이명화, 1997).

청소년은 민법에서는 20세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을, 청소년육성법은 9세이상 24세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성의 관계를 말할때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약 10년을 포함하여 대략 11세에서 20세의 연령군을 말한다(김연희와 정문숙, 1993). 산업사회에서는 청소년기를 사회적 성숙, 즉 사회경제적 독립을 기준으로 심리적으로는 아동기와 성인기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않은 주변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심리적인 적응을 추구하는 시기로 보아 육체적 성숙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령만으로는 청소년을 규명하기는 어렵다고도 본다.

Havighurst(1972)는 성과 관련된 청소년의 발달 과업으로 새로운 사회성과 성 역할 습득, 신체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부모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그리고 자신의 성에 대해 책임질 것을 준비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Stevens-Long & Cobb, 1983; Dacy, 1986). Freud(1958)는 청소년기를 혼란의 기간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겪는 과도기적 시기로 성격 발달의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이 시기는 성에너지의 집중화, 재활성화와 관련되어 성적 주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성적 주체성의 확립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본능적 충동이 증가하게 되어 사소한 욕구좌절에도 쉽게 문제행동이 나타나고 성적 발달 장애를 초래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병적 행동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개방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건강과 정서적 성숙은 물론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고 있다. 또한 교육기간의 연장, 결혼 연령의 지연, 가족간의 영향력 감소, 대중매체와 정보화 사회의 접촉 기회 증대 등은 성에 대한 가치나 신념의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성적인 행동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1989)는 이런 내·외 변화와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어서, 세계적으로 성교 연령의 저하, 성병의 증가, 원치 않는 임신의 증가, 인공 임신중

절의 증가, 출산의 증가, 청소년 연령층의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등의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연구 보고에서 나타나고 있다(김한경, 1983).

이런 사회적 추세와 더불어 청소년의 성적 성숙과 관련된 지식 부족은 적응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을 가져온다. 그러나 누구도 성에 관한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문화에서는 성은 드러내어진 상태보다는 감추어지고 은밀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음성적이고 폐쇄적 방법으로 배우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양순옥, 1999, 최순희, 1990). 특히, 청소년은 성적인면에서 신체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지만 사회적 제약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최양자, 1987). 따라서 기성세대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지닌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성적 존재로서 바르게 이해하고, 청소년은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함께 올바른 인식, 가치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청소년의 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의 성적 자립은 물론 나아가 건전한 성문화가 토착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의 성지식과 태도

청소년기는 다양한 변화과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자아개념과 자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청소년의 다양한 변화 중 성적 성숙은 청소년기에 나타나지만, 실제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성인이 된 후 즉 청소년후기에 가서야 성적 욕구와 진정한 의미의 친밀감이 통합된다. 그러나 빠르거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에 이르는 청소년 전기는 성적 공상과 호기심이 많아 정상적인 성발달과 일탈 성행위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춘기는 종래의 13-14세에서 10-11세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고,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 6학년에 유방이 표출되는 신체 변화를 경험하며 초등학교 졸업 전에 과반수 이상이 초경을 경험하고 있다(조혜진, 1987). 정상적인 성 발달에 따른 경험 중 초경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은 '놀라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병이 난 줄 알았다', '놀라고 불안했다', '나쁜 느낌' 등의 부정적인 태도가 많았다(김옥렬, 1992; 이옥철,

1990). 초경은 사춘기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이므로 월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정서불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모는 딸이 여성으로 성장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부모의 태도와 신체 변화나 월경현상에 대한 이해 능력은 자녀가 성적 주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서울특별시 간호사회, 1993).

남성의 성적 성숙은 개인차가 심하지만 발달 순서는 매우 일정하다. 음경의 성장은 11세-14세 경에, 음모는 10-15세, 겨드랑이 털과 얼굴의 수염은 14세 경 그리고 가슴의 털은 가장 늦게 나타난다. 사정의 경험은 10-13세 전후하여 사춘기 중반기에 경험하게 된다. 사정은 몽정이나 자위행위를 통해 또는 성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몽정 경험에 대한 반응은 '병이 난 줄 알았다', '놀라고 불안했다'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청소년의 월경 태도에 비해 자연스런 현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나타난다(김옥렬, 1992; 이옥철, 1990). 자위행위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행해지는 성 행동인 동시에 가장 큰 성 고민 중 하나이다. 1993년 한해동안 청소년 상담기관에 의뢰해 온 상담내용 중 가장 많은 갈등과 고민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자위행위 내용 이었다. 자위행위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대부분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순희, 1990). 한국여성개발원(1994)의 연구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위행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실제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자위행위에 대한 죄의식은 많은 경우 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된 성지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올바른 성지식의 교육은 청소년 스스로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 성적인 충동은 사고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쳐 아동기에 지니고 있었던 순결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한다. 성충동의 유발은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우연히 유발되기도 한다. 키스나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과 자극이나, 성적 환상이나 상상, 일상적인 우연한 자극 등에 의해 발생된다. 이같은 성충동의 유발은 연령이나 성별 구별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다. 성충동의 억제는 시대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 다양하다. 60-70년대 우리나라의 순결교육은 여성에게 이중 기준의 억제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임신을 초래하지 않거나, 성병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와 미성년에 대한

성행위와 강제에 의한 성행위를 제외하고는 크게 억제하지 않는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4). 중학생의 경우에 성충동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최순희, 1990). 청소년이 성충동을 갖는 것은 성장의 신호로 성에 대한 호기심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수용되어 전달되고 해결되는가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성교육자는 성충동에 대한 태도와 경험세계를 잘 인식해야 한다.

성적 성숙과 함께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고 가장 주된 관심사는 이성교제에 대한 것이다. 이성교제는 부모는 물론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인간으로 성장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에 대한 바른 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사춘기에 이성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은 평화로운 삶의 기초이며 여기에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싹튼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이거나 고학년일수록 이성교제를 더 원한다(김상옥 등, 1992). 성적 성숙의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에 자연스러운 적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교육이 발달수준에 맞게 효과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보면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에 대한 지식정도는 낮거나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김성실, 양순옥, 정금희, 김진정 1999; 한유정, 박인혜, 1996; 홍문식, 1989; 김한경, 남정자 및 한혜경, 1988) 이는 학생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나 학교 현장에서 단편적이고 소극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한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태도는 청소년기 또는 그 이전에 학습된 성지식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성장시점의 인격적 요소는 물론 혼전 성관념과 결혼후 성생활까지 영향을 미친다(이윤선, 이근후, 1987).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성태도와 정신건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건전한 성태도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좌절감과 성적 일탈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김미주, 1997)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을 기피하는 전통문화 속에서 살아 왔다. 일상생활에서 성을 화제에 올리는 일은 점잔지 못한 일로 알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하승일, 1988). 누구도 '성'에 관한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으며 성은 드러내어진 상태보다는 감추어지고 은밀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음성적이고 폐쇄적인 방법에 의해 배워지고 있는 현실이다(최순희,

1990). 그리하여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기준은 없고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성에 대한 금기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식생활 향상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성숙이 빨라져 사춘기 연령이 낮아지는 현실적 상황과 인간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교육도 이에 발 맞추어 변화되어야만 한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의 습득원은 비디오, 잡지나, 동료친구로부터의 정확하지 않은 구전적 정보임을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청소년은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나 인간이해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성교육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습득하게 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 중심의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오늘의 청소년들 특히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인 중학교 1학년생에 대한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흥천에 소재한 4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이 때부터 2차 성징이 급격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편의추출에 의해 선정된 학교에 공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그런 후 대상학교를 방문하여 양호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재차 설명한 후 양호교사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질문지는 스스로 응답케 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질문지를 시행할 때는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비교적 한가한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였고 대상자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는데는 평균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대상자에게는 580부가 배포되었으나 이 중 자료가 불충분한 46부를 제외한 총 534부를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4. 연구도구

1) 성 지식

본 연구대상 중학생들의 성에 관한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SIECUS(1991)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생식의 해부생리, 2차 성징, 인간의 성적 반응, 자위행위, 성 행동, 성 폭력, 성병, 에이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성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본 도구는 연구자가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개발한 도구로 총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을 했을 경우 1점, 오답과 '모르겠다'의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0점을 주어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8832$ 로 나타났다.

2) 성 태도

대상자들의 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이성교제, 사춘기의 신체변화에 대한 생각, 신체상, 성적 정체감, 결혼, 성역할을 포함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점 척도로 구성된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긍정 문항의 경우, '그렇다' 2점, '보통이다' 1점, '아니다' 0점을 주었으며 부정 문항의 경우에는 역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7041$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홍천여중 학생이 274명(51.3%)로 가장 많았으며 홍천 남중 학생은 31.3%, 동화중학교 학생이 1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학생은 60.2%로 남학생의 39.8%보다 많았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대부분인 92.6%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7.4%는 이혼이나 별거 등의 상태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31-75세의 범위로 평균 42.6 세이었고 어머니의 연령은 30-65세의 범위로 평균 39.4세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졸이 45.4%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졸이 29.7%, 국졸 15.0% 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 공무원이 36.8%, 농업이 25.4%며 어머니도 전업주부에서 30.8%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가 45.8%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의 54.2%보다 적었다. 형제는 100%가 모두 있었으며 형제수는 1명-8명의 범위로 평균 1.7명이었다. 동거가족으로는 부모와 같이 사는 핵가족이 72.9%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는 자기 집에서 산다고 하는 경우가 94.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친척집이나 자취 등의 경우이었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가족의 경제상태는 88.7%가 '중'이라고 응답하였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특 성	실수(백분율)
학교명	동화중	94(17.6)
	홍천남중	166(31.1)
	홍천여중	274(51.3)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	476(92.6)
	이혼	14(2.7)
	사별	10(1.9)
	별거	6(1.2)
	기타	8(1.6)
아버지 연령	40세 이하	203(38.0)
	41~45세	260(28.7)
	46세 이상	71(13.3)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구분	특성	실수(백분율)
아버지 학력	국졸	74(14.9)
	중졸	114(22.9)
	고졸	239(48.0)
	대졸	71(14.3)
아버지 직업	농업	131(25.4)
	상업	111(21.6)
	회사/공무원	138(26.8)
	교사	10(1.9)
	노동	36(7.0)
	무직	9(1.7)
	기타	80(15.5)
동거가족	부모	372(72.9)
	부모와 조부모	98(19.2)
	부모 중 1분	19(3.7)
	조부모	13(2.5)
	친척	8(1.6)
경제 상태	상	33(6.2)
	중	469(88.7)
	하	27(5.1)
성별	남자	210(39.8)
	여자	317(60.2)
부모의 맞벌이 여부	예	241(45.8)
	아니오	285(54.2)
어머니 연령	39세 이하	326(61.0)
	40~42세	135(25.3)
	43세 이상	73(13.7)
어머니 학력	국졸	74(15.0)
	중졸	146(29.7)
	고졸	241(49.0)
	대졸	31(6.3)
어머니 직업	농업	91(17.5)
	상업	125(24.1)
	회사/공무원	30(5.8)
	교사	7(1.3)
	노동	12(2.3)
	무직	160(30.8)
	기타	94(18.1)
주거형태	자기집	502(94.5)
	친척집	10(1.9)
	자취	5(0.9)
	기타	14(2.6)

2. 대상자의 성 관련 경험 및 성교육 요구

대상자의 성 관련 경험에서는 성에 대한 지식 출처, 이성교제(관심, 교제유무, 신체적 접촉, 성교 등), 음란매체, 그리고 성교육요구는 부모, 교사에게 성 관련 질문

경험, 성교육 받은 경험, 성과 관련되어 알고 싶은 정보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성에 대한 관심정도는 가끔 생각한다가 77.2%, 자주 생각한다가 9.1%로 대부분이 이성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성과의 신체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체 접촉 유형은 손잡기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 경험은 대부분이 없으나, 성교육 경험은 71.2%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음란매체에 경험은 전혀 경험이 없음이 57.3%, 한 두 번 이상의 경험자가 36.3%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얻는다는 경우가 40.1%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사춘기의 신체변화에 따라 관련 교과목 등을 통해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고 생각되며, 청소년기의 특성상 친구들을 통해 습득하는 경우도 21.9%로 나타났다. 신문, 잡지, TV가 11.4%, 부모님 10.1%, 영화, 비디오가 8.4%, 형제, 자매가 1.7%의 순이었다.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 지식 습득경로가 친구, 매스컴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양순옥, 정금희, 백성숙 1998; 정등신, 1984)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대상이라는 점과 대비해 볼 때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나 학교의 영향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또래 친구집단의 영향이 커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윤선(1987)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경우, 남자의 89.5%, 여자의 72.4%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성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나 학교 교육의 공식 경로를 통한 성 지식 습득이 많음은 본 연구와 일치되었다. 친구로부터의 성지식을 얻을 경우 불확실하고 그릇된 성지식일 가능성이 높으며 음란한 성관계 기사나 도색사진을 통하여 습득된 성지식은 왜곡된 성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성 정보는 외면 당하는 수가 많으며 흥미분위의 대중매체에 의한 성 정보는 쉽게 왜곡, 과장되어 불건전한 성 지식이 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성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도처에 산재하고 있어 성적 탈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성 건강과 관련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음란매체를 접한 경험에 대해서는 '없다'고 한 경우가 57.3%로 나타났지만 상당 부분의 청소년이 이미 음란매체에 노출되고 있음을 볼 때(한국일보, 우리 아이

성 크리닉-음란물 중독, 2000. 9월14일) 신문, 잡지, TV, 비디오, 컴퓨터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태도를 형성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부모님께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3.7%가 없다고 하였으며 '학교 선생님께 성과 관련한 질문을 해 본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7.0%가 없다고 하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할 실정으로 이에 대해 장일원(1985)은 학교에서는 먼저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현직 교사를 위한 성교육은 한정된 인원에 대하여 1-2회 정도 연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1회 교육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교나 집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에 대해서는 50.1%가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표 2).

중학생이 성과 관련되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성교제」가 4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36.3%), 「에이즈」(35.0%), 「사춘기의 신체 변화」(34.5%), 「남녀의 역할」(29.6%), 「결혼」(28.1%), 「임신과 출산」(27.3%), 「음란 매체」(26.6%), 「성충동 해소법」(23%), 「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구하는 방법」(22.5%), 「성병」(22.3%), 「자위행위」(21.4%), 「성과 관련된 정보」(21.0%), 「피임」(20.2%), 「유산」(19.9%), 「생식기 해부생리」(16.3%), 「사정발기」(15.9%)의 순 이었다(표 3).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있어서 '이성교제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급박하고 절실한 문제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야기되는 성폭력,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 2차 성징의 변화 적응에 대한 건강한 성에 대한 관심 보다 이탈된 성행동에 관심이 높게 나타남은 그만큼 우리사회에 이러한 문제의 만연과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회의 의지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 4-1, 4-2).

〈표 2〉 성관련 경험

구분	특성	실수(백분율)
이성에 대한 관심정도	자주 생각함	48(9.1)
	가끔 생각함	407(77.2)
	전혀 생각안함	72(13.7)
음란매체를 접한 경험	없음	301(57.3)
	한두 번	193(36.8)
	여러 번	31(5.9)
성교 경험	없음	435(94.0)
	1-2회	19(4.1)
	3-5회	6(1.3)
	6회 이상	3(0.6)
이성교제 여부	없음	459(87.3)
	있음	36(6.8)
이성과 신체접촉 경험	안하고 있음	491(93.2)
	있음	36(6.8)
성에 대한 지식습득	없음	459(87.3)
	한두 번	6(1.1)
	여러 번	61(11.6)
성교육 경험	학교	214(40.1)
	부모님	54(10.1)
	형제, 자매	9(1.7)
	친구들	117(21.94)
	신문, 잡지, TV	21.3(114)
	영화, 비디오	45(8.4)
신체 접촉 유형	손잡기	174(32.6)
	가벼운 포옹	23(4.3)
	입마춤	22(4.1)
	몸만지기	11(2.1)
	성교	4(0.7)
부모님께 성관련 질문경험	없음	338(63.7)
	한두 번	176(33.7)
	여러 번	14(2.6)
성교육 경험	있음	378(71.2)
	없음	153(28.8)
학교선생님께 성관련 질문 경험	없음	460(87.0)
	한두 번	62(11.7)
	여러 번	7(1.3)

〈표 3〉 알고 싶은 성관련 정보

내용	실수	백분율(%)
생식기 해부생리	87	16.3
임신, 출산	146	27.3
사춘기신체변화	184	34.5
이성교제	251	47.0
결혼	146	28.1
성 윤리	81	15.2
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구하는방법	120	22.5
성과 관련된 정보	112	21.0
자위행위	114	21.4
사정발기	85	15.9
성충동 해소법	123	23.0
피임	108	20.2
유산	106	19.9
성병	109	22.3
에이즈	187	35.0
성폭력	194	36.3
남녀의 역할	158	29.6
음란매체	142	26.6

〈표 4-1〉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성 지식	.00	.76	.3100	.1560
성 태도	.30	1.85	1.2640	.2457

〈표4-2〉 점수범위별 성지식과 성태도 분포

점수 범위	성지식	성태도
	실수(백분율)	실수(백분율)
0 ~ 10 점	51(9.8)	2(0.4)
10 ~ 20 점	79(15.2)	2(0.4)
20 ~ 30 점	122(23.4)	7(1.3)
30 ~ 40 점	117(22.5)	29(5.4)
40 ~ 50 점	108(20.7)	147(27.5)
50 ~ 60 점	32(6.1)	182(34.1)
60 ~ 70 점	9(1.7)	98(18.4)
70 ~ 80 점	3(0.6)	45(8.4)
80 ~ 90 점	0(0.0)	20(3.7)
90 ~ 100 점	0(0.0)	2(0.4)

1) 성지식 정도

대상자의 성 지식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을 때 .00점에서 76.130점의 범위로 평균 31.00점으로 낮았다. 이를 10점 단위로 분석해 본 결과, 20-30점이 하가 2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점-40점이 하가 22.5%, 40-50점 이 하가 20.7%의 순 이었다. 즉, 대상자의 대부분인 91.6%가 50점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어 대상자의 성 지식 점수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61.83(김상근, 1986)과 자궁 적출술을 한 여성의 평균 성 지식 54.19(구자성, 1997)보다 낮은 수치이다. 성 지식을 묻는 항목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맞게 응답한 문항은 「에 인사이라 해도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69.3% 「임신을 하면 월경을 하지 않는다」가 62.4%, 「2차 성징은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60.9% 「유방의 발육시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59.0% 「남자의 고환은 2개이다」가 55.8% 「올바른 성은 양성평등에서 시작된다.」가 55.4% 32문항 중 6문항이었을 뿐 다른 문항은 틀린 경우가 더 많았다. 즉 성폭력, 2차 성징과 호르몬의 관계 임신, 신체의 발육 등에 대해서는 이미 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김미주, 1997)이므로 정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의 성 지식이 낮은 문항으로는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젊은 여자이다」 10% 「성관계 전이나 후에 항생제를 먹으면 성병이 예방된다」가 12.4% 「남자들은 모두 포경수술을 해야한다」,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가 각각 13.7% 「성관계때 피임을 해도 임신이 될 수 있다.」 15.2% 「에이즈는 감염자와 같은 직장이나 집에서 생활하면 감염 될 수 있다.」와 「성정체감은 자신의 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각각 15.4% 「음경이나 유방은 접촉을 많이 할수록 커진다」 17.0%만이 올바르게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과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한 홍문식(1989)의 연구결과에서는 남녀 생식생리에 관한 용어나 구체적인 성 지식에 있어서 모두 성에 대한 지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 결과는 성지식이 낮은 문항은 대부분이 안전한 성에 관련된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차이가 있어 이들이 당면한 문제, 관심이 있는 문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에 대해서도 13.7%만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이 자위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위와 관련지어 불안이나 두려움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포르노 비디오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15%의 대상자가 '그렇다', 52.1%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중학생들이 음란매체를 경험할 경우 이를 바로 사실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성 지식을 갖게되어 불건전한 성 태도를 조장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성 정보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흥미위주로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흡수케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호기심은 물론 갈등까지 자아내어 인격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황은자, 1988).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은 금기사항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에 관한 지식은 주로 은밀한 가운데 획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김상근, 1986). 그러므로 성과 관련된 매체들이 보다 건전하고 교육적인 것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아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방송 등의 대중매체도 올바른 지도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대중매체의 경우에는 성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 성을 자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생

각된다. 그러므로 학교, 가정, 사회에서는 아동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스컴의 제작, 양서의 출판, 범람하는 도색 잡지에 대한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정옥(1988)의 연구에서는 성 지식이 낮을수록 미혼모가 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중학생에 대한 성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성 태도 정도

대상자의 성 태도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을 때 15.00점에서 92.50점의 범위로 평균 62.0점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성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인을 알 수 있다. 이를 10점 단위로 분석해 본 결과, 50-60점 이하가 34.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점-50점 이하가 27.5%, 60-70점 이하가 18.4%의 순이었다. 즉, 대상자의 68.1%가 51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어 대상자의 성 태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순희(1990)의 연구에서는 47.7%가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결과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를 문항별로 분석해 보면 각 문항의 경우 2점 만점으로, 「가슴이 커지고 털이 나는 변화는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자랑스럽다」가 1.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나는 여성(남성)인 것이 자랑스럽다.」가 1.23,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가 1.14의 순이었다. 즉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성정체감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춘기의 신체 변화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여 인간의 평등을 성에 의해 좌절시켜왔으나 사회변화에 따라 남녀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변화가 온 것으로 남녀 차별적인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관념에 대한 기존 가치관의 변화로 사회, 경제발전과 더불어 교육기회의 확대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 성에 대한 태도가 재정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령이 높을수록, 남자교사일수록 경직된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박숙자, 1987; 황은자, 1992)를 통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성들 스스로도 편견 없는 성에

대한 인식과 주체적 인간으로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태도를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므로(김정옥, 1988)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사회에서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 성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 특히 남·녀 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동시에 올바른 성 의식과 습관을 지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성 태도에서 비교적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은 「이성친구의 신체 성장 변화도 알아야 한다」는 .63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리통이 싫다(여학생), 포경수술 하는 것이 싫다(남학생)」가 .68,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색해서 피하고 싶다」가 .75의 순이었다. 이성친구의 신체 성장변화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이 연령의 아동이 이성간의 대립적 상태가 유지되는 Hurlock의 발달단계 중 성적 대항기에 놓여있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생리통과 포경수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옥철(1990)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성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월경, 몽정과 같은 2차 성징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윤선(1987)은 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군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군보다 결혼 후 성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조혜진(1987)은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태도가 건전하면 일생동안 건전한 성적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 시기에 불건전한 성적 태도가 형성되면 역시 일생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언이나 정신치료로도 왜곡된 성적 태도는 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 태도는 성 지식과는 달리 단시간 내에 형성되거나 변화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5).

1) 성지식과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에 있어서

는 부모의 결혼상태($t=5.913, p=.015$), 아버지의 학력($F=3.213, p=.041$), 경제상태($F=5.073, p=.007$), 이성에 대한 관심($F=15.703, p=.000$)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t=.059, p=.809$), 어머니의 학력($F=1.567, p=.210$), 부모의 맞벌이($t=.292, p=.589$) 형제 자매($t=.000, p=.983$), 이성교제($t=.184, p=.668$) 음란매체 경험($t=.052, p=.819$), 부모님께 성 관련 질문경험($t=.670, p=.413$),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경험($t=.154, p=.695$), 성교육 경험($t=.111, p=.739$)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의 결혼 상태에 따라 성 지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5.913, p=.015$) ($F=64.031, p=.000$),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대상군에 비해 성지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도 고졸 이상인 경우가 중졸 이하보다 성 지식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213, p=.041$).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 지식의 습득원으로서 부모님이 10%로 낮게 나타났지만(표 2)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중학생에게 주어지는 성 지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정득진(1984)의 연구 결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성지식도가 높은 것($P<.0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김상옥과 남철현(1992)의 중학생의 성행태 조사에서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사랑이 성행태의 유의한 상관관계($P<.001$)를 나타남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어 성지식이나 태도 획득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경제 상태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5.073, p=.007$), 김상근(1986)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성 지식이 높게 나타나 경제상태가 성 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는 빠른 성숙을 낳게 함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아져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유추되나 직접적인 관련 요인은 차후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은 빈도에 따라 자주 생각할수록 성지식이 높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15.703, p=.000$).

성 지식과 관련된 다른 연구를 비교해 볼 때, 이옥철(1990)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성지식 정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에 비해 남자가 성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은정(199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태도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F=3.912, p=.021$), 이성에 대한 관심($F=3.292, p=.038$)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t=3.834, p=.051$), 부모의 결혼상태($t=.611, p=.435$) 어머니의 학력($F=2.647, p=.072$), 부모의 맞벌이 여부($t=.143, p=.705$), 형제, 자매의 유무($t=.214, p=.644$), 경제상태($F=1.409, p=.245$), 이성교제경험($t=1.190, p=.276$), 음란매체 경험($t=.697, p=.404$), 부모님께 성 관련 질문경험($t=.910, p=.340$), 선생님께 성 관련 질문경험($t=.474, p=.491$), 성교육 경험($t=.092, p=.491$)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912, p=.021$). 이는 성 지식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성 지식이 어느 정도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성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도 이성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292, p=.038$).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지식이 올바른 태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영향을 준 사람의 태도에 따라 좌우되고 사춘기에 받은 성적 훈련의 종류가 성 행동의 관심과 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학교에서의 교사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학부모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의 기성세대들의 대부분이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성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막아 온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고 과거에 정상적이며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이 전제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염복연(1981)은 과거 전통사회에 있어서 성을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해 온 낡은 성 의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기성인이나 일부 교사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교육에 문

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성교육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도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조연순(1989)의 연구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아동들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강희경(1992)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성에 관한 태도는 성교육 실시 후에 전체적으로 더 긍정적이고 건전한 태도로 발전되었음이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유정, 박인혜(1996)의 연구에서도 성교육 후 성 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김정옥(1988)은 성교육이란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여 인간 완성을 지향하는 인간교육인 동시에 인격교육이라고 하

였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성교육이 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 태도와 관련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신영희(1987)의 연구에서는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서 성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은정(199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여자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남학생에 비해 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아에 비해서 여아의 성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재검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5.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

<표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차이

구 분	특 성	빈도	성 지식				성 태도			
			M	SD	t or F	p	M	SD	t or F	p
성별	남자	215	.3234	.1565	.059	.809	1.2465	.2732	3.834	.051
	여자	316	.3019	.1541			1.2767	.2232		
부모의 결혼상태	동거	477	.3173	.1531	5.913	.015	1.2653	.2402	.611	.435
	별거	38	.2599	.1850			1.2434	.2539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188	.2907	.1611	3.213	.041	1.2399	.2564	3.912	.021
	고졸	239	.3290	.1562			1.2592	.2446		
	대졸이상	71	.3125	.1314			1.3345	.2071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220	.2964	.1539	1.567	.210	1.2382	.2519	2.647	.072
	고졸	243	.3241	.1592			1.2712	.2414		
	대졸이상	31	.3135	.1392			1.3371	.2320		
부모의 맞벌이	예	286	.3070	.1504	.292	.589	1.2675	.2441	.143	.705
	아니오	240	.3160	.1626			1.2631	.2459		
형제, 자매	유	497	.3205	.1633	.000	.983	1.2857	.2433	.214	.644
	무	35	.3105	.1554			1.2615	.2460		
경제상태	상	33	.3608	.1258	5.073	.007	1.2591	.2479	1.409	.245
	중	470	.3115	.1555			1.2595	.2450		
	하	27	.2338	.1708			1.3407	.2450		
이성 관심	자주생각	46	.3763	.1450	15.703	.000	1.2058	.3104	3.292	.038
	가끔생각	406	.3183	.1523			1.2737	.2346		
	생각않함	76	.2283	.1497			1.1986	.2502		
이성교제 경험	유	36	.3585	.1476	.184	.668	1.2194	.2892	1.190	.276
	무	494	.3083	.1556			1.2676	.2417		
음란매체 경험	유	302	.2799	.1525	.052	.819	1.2667	.2432	.697	.404
	무	225	.3560	.1486			1.2558	.2454		
부모님께 성관련 질문경험	유	338	.2995	.1511	.670	.413	1.2345	.2514	.910	.340
	무	193	.3337	.1603			1.3161	.2242		
선생님께 성관련 질문경험	유	69	.3311	.1459	.154	.695	1.2627	.2424	474	.491
	무	460	.3101	.1560			1.2855	.2503		
성교육 경험	유	378	.3207	.1562	.111	.739	1.2811	.2435	.092	.762
	무	153	.2902	.1513			1.2222	.2439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54, p = .000$). 즉, 대상자의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은정(1990)의 연구에서도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지형근(1985)은 부모와 학교로부터 솔직하고 적절한 성 지식을 습득한 경우는 장래 건전한 성태도를 갖게 되나, 성적 호기심이 묵살되거나 억제 당하는 경우에는 왜곡된 성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상근(1986)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개방적인 성적 태도가 성지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상자의 성지식을 높임으로써 긍정적인 성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표 6〉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

	r	p
성 지식	.354	.000
성 태도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중학생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성 교육을 모색하여 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총천에 소재한 4개 중학교 1학년 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IECUS(1991)의 개념적 틀을 근간으로 하여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관관계 경험 및 성교육 요구

이성에 대한 관심정도는 가끔 생각난다가 77.2%, 자주 생각난다가 9.1%로 대부분이 이성에 대한 관심 정도가 그리고 이성과의 신체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체 접촉 유형은 손잡기가 32.6%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께 성과 관련된 질문경험은 각각 63.7%, 87.0%가 없다고 하였으나 성교육 경험은 71.2%로 나타났다. 음란매체에 경험은 전혀 경험이 없음이 57.3%, 한 두번 이상의 경험자가 36.3%로 나타

났으나 성에 대한 지식은 학교에서 얻는다는 경우가 40.1%, 친구들을 통해 습득하는 경우 21.9%, 신문, 잡지, TV가 11.4%, 부모님 10.1%, 영화, 비디오가 8.4%, 형제, 자매가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알고 싶은 성관련 정보

중학생이 성과 관련되어 알고 싶은 내용은 「이성교제」 47.0%, 「성폭력」 (36.3%), 「에이즈」 (35.0%), 「사춘기의 신체 변화」 (34.5%), 「남녀의 역할」 (29.6%), 「결혼」 (28.1%), 「임신과 출산」 (27.3%), 「음란매체」 (26.6%), 「성충동 해소법」 (23%), 「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구하는 방법」 (22.5%), 「성병」 (22.3%), 「자위행위」 (21.4%), 「성과 관련된 정보」 (21.0%), 「피임」 (20.2%), 「유산」 (19.9%), 「생식기 해부생리」 (16.3%), 「사정발기」 (15.9%)의 순이었다.

3. 성 지식과 성 태도 정도

대상자의 성 지식 정도는 평균 31.0점으로 낮았으며 성 태도 점수는 평균 62.0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정도

부모의 결혼상태($t = 5.913, p = .015$), 아버지의 학력($F = 3.213, p = .04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 태도 정도는 아버지의 학력($F = 3.912, p = .0021$), 이성에 대한 관심 ($F = 3.292, p = .038$)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

성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 = .354, p = .000$) 대상자의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 건전한 태도, 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능력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성장기 청소년의 성 지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교육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 지식과 건전한 성 태도를 함양하여 건전한 인생관, 결혼관을 영위하며 나아가 밝은 미래를 엮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의 성에 대한 관심과 계몽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학습자의 발달단계뿐만 아니라 학습자 요구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추후연구로 성교육이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보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3. 조기 성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의 성 지식이나 성 태도를 비교해 보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 (1992). 성교육을 통한 국민학교 아동의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성 (1997). 자궁적출술을 한 여성의 성지식과 수술 후 성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주 (1997). 초중고등학교 성교육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부자 (1986). 미혼모의 가정환경과 성태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근 (1986). 여고생의 성지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욱, 남현철 (1992).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의식 행태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5권 2호, 42-65.
- 김수지, 노춘희 (1990).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대한간호, 29권 2호, 11-15.
- 김연희, 정문숙 (1993).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요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0권 2호, 40-55.
- 김영희, 이명화 (1997).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3권 2호, 255-275.
- 김옥렬 (1992).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1988). 학교 성교육의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1988). 학교 성교육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태 (1992). 청소년의 성교육. 한국학교보건학회지, 5권 2호, 38-41.
- 김진선 (1995).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권 2호, 174-189.
- 김한경 (1983) 학교외의 가정생활 및 성교육. 고등학교 성교육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김한경, 남정자, 한혜경 (1986). 청소년 성상담전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례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김홍균 (1991).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 석사학위논문.
- 대한가족계획협회 (1997). 청소년 성문제 대처방안 세미나 보고서.
- 박숙자 (1987).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블레이 (1982). 청년심리학. 서울: 배영사.
-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편찬 (1994). 성교육. 서울: 현문사.
- 송정부 (1992). "청소년의 문제행동". 「청소년 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안창선, 김현옥 편역 (1991). 학교성교육. 서울: 교육과 학사.
- 양순옥 (1999). 성과 성문화, 홍천군 거점모자보건사업 성교육지도자 교재. 한림대학교 사회교육원.
- 양순옥 (2000). 성교육 개선방안과 사업추진전략. 대구시 성교육 개선 방안과 사업추진전략세미나 자료집, 주관: 대구시 가족조건복지협회.
- 양순옥, 정금희 (1998). 제대로 알면, 자녀의 성교육 문제없어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이순열 (1991). 성교육 도서를 활용한 성교육 지침 실천연구. 서울: 구로중학교.
- 이옥철 (1990). 서울시내 일부국민학교 학생학부모의 성교육요구도 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요식, 김재인, 정해숙, 양애경 (1992). 제6차 교과과정에서 성교육 내실화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이윤선, 이근후 (1987) 청소년기의 성태도형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통계적 관찰. 신경정신의학, 26(1호).

- 이은정 (1990).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지식 및 태도, 성교육 요구시기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85-100.
- 이인섭 (1987).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영 (1983). 국민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림 (1996). 중학생의 성교육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 8권 2호, 201-212.
- 장일원 (1985). 성교육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의식조사 분석.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광문 (1983). 우리나라 청소년 성문제의 현황(고등학교 성교육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7권, 5-24.
- 정득진 (1984). 서울시내 중·고등학생의 성성숙도 및 성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영숙 (1993). 서울시내 국민학교 양호교사의 성교육 실시 실태 및 참여 태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진 (1987). 국민학교 아동의 성교육에 관한 연구-여학생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지형근 (1985). 학생 및 비행 청소년의 성 관심도와 문제행동 유형간의 관계분석.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순희 (1990).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119-134.
- 최순희 (1990). 중학교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권 1호, 119-134.
- 최양자 (1987). 근로청소년들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 42-65.
- 하승일 (1988). 초등교육에서 성역할과 성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7). 강원도여성의 성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천지부.
- 한국여성개발원 (1994). 사춘기 자녀의 성,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서울: 삼화출판사.
- 한국일보사 2000.9.14일자
- 한유정, 박인혜 (1996).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간호과학논집, 1권 1호, 23-40.
- 한유정, 박인혜 (1996). 성교육이 중학생이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간호과학논집, 1(1), 23-40.
- 홍문식 (1989). 한국 청소년의 성생태 고찰. 한국보건교육학회지, 6(1), 22-23.
- 황은자 (1988). 성교육 담당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적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G. (1976). Human Sexuality :Recognizing the range of human sexual needs and behaviors. Matern Child Nurs J. 1, 165-169.
- Cassel, C. (1981). Putting Sex Education in its Place. J Sch Health, 51, 211-213.
- Cobb, N. (1992). Adolescence: Continuity, Change, and Diversity. London: Mayfield pub Com.
- Dacey J. S. (1986). Adolescents Today, 3rd. ed., Lillinois: Scott Fresman & Com.
- Freud, A. (1958). Adolescence in Psychoanalytic Study of Chil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 Heisler, A. B., Stanford B. Friedman (1980). Adolescence: Psych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 J Sch Health, 50, September, 381-385.
- Rubinson, L., Lorraine, B. (1981). Planning School Based Sexuality Programs Utilizing the PRECEDE Model. J Sch Health, 51, 2, 282-287.
- SIECUS(1991). 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ten -12th Grade, New York) NY : 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 Stevens-Long, J., Nancy J. C. (1983).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Los Angeles: Mayfield Pub Com.
- WHO (1989). The Reproductive Health of Adolescents: A strategy for action. Switzerland: MCH Division of Family Health.

- Abstract -

key concept :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Middle school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in Middle School Students

Yang, Soon Ok · Kim, Seong Sil*
Jeong, Geum Hee* · Kim, Shin Jeong**

With the improvement of nutritive conditions and the influence of abundant information as well as various cultural aspects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puberty develops more rapidly in the body toda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some ideas that are useful in planning sexual education programs in middle schools with ultimate aim being to promote sexual health.

The subject of this survey consisted of 534 fifth graders from 4 schools in Hongchon.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egree of sexual knowledge of adolescents showed a low average 31.00 and the degree of sexual attitude showed an average of 62.0.

2. With respect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the following: living with parents ($t=5.913$, $p=.015$), father's education ($F=3.213$, $p=.041$), economic status ($F=5.073$, $p=.007$); and in sexual attitude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father's education ($F=3.912$, $p=.002$), and interest in the other sex ($F=3.292$, $p=.038$).

3.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f adolescents was correlated at significant levels ($r=.354$, $p=.000$).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a variety of systematic sexual education programs suitable for each stage of adolescence should be developed along with family, society, and the country's higher concern and enlightenment.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